

## ‘자연의 보고’ 평두메습지, 광주 1호 람사르습지 지정

멸종위기종 등 생물 786종 서식  
희귀지형 등 생태 보전가치 인정  
환경단체 “환영”... 유지 노력 주문  
북구 “자연·사람 모두 이롭게 관리”

무등산 평두메습지가 광주 1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희귀지형이 있고 멸종 위기종 등이 살고 있는 평두메습지의 생태 보전가치가 인정된다’는 게 스위스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지정 이유다. 환경단체와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습지·생태 유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이다.

13일 광주시·북구에 따르면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람사르 협약 사무국은 이날 오전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람사르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을 뜻한다. 광주·전남에는 총 6곳의 람사르습지가 있는데 광주에선 이번이 최초 등록이다. 전국에는 26개의 람사르습지가 있다.

평두메습지는 지난 2020년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등산 대표 ‘묵논습지’다. 묵논은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습지를 뜻한다. 이곳에는 삶·담비·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786종(동물 578종·식물 208종)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 서식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집단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파악된다.

앞서 북구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평두메습지 가치를 널리 알릴 보전하고자 지난해 4월 람사르습지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올초 주민 설명회·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등록 자료를 마감, 지난 2월 2일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등록 자료에는 평두

메습지에서 발견된 786종의 동·식물들의 생태 사진과 이름 등이 기록돼 있다.

심사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탐사대, 평두메습지 효율 보전·이용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지역 공감대를 넓혔다. 어린이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탐사대(6~9세 대상)에서는 △평두메습지 생물 관찰 △습지 지킴이 약속 그림 전시회 △기후 위기 교육 등이 진행됐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당국에 ‘생태 유지 노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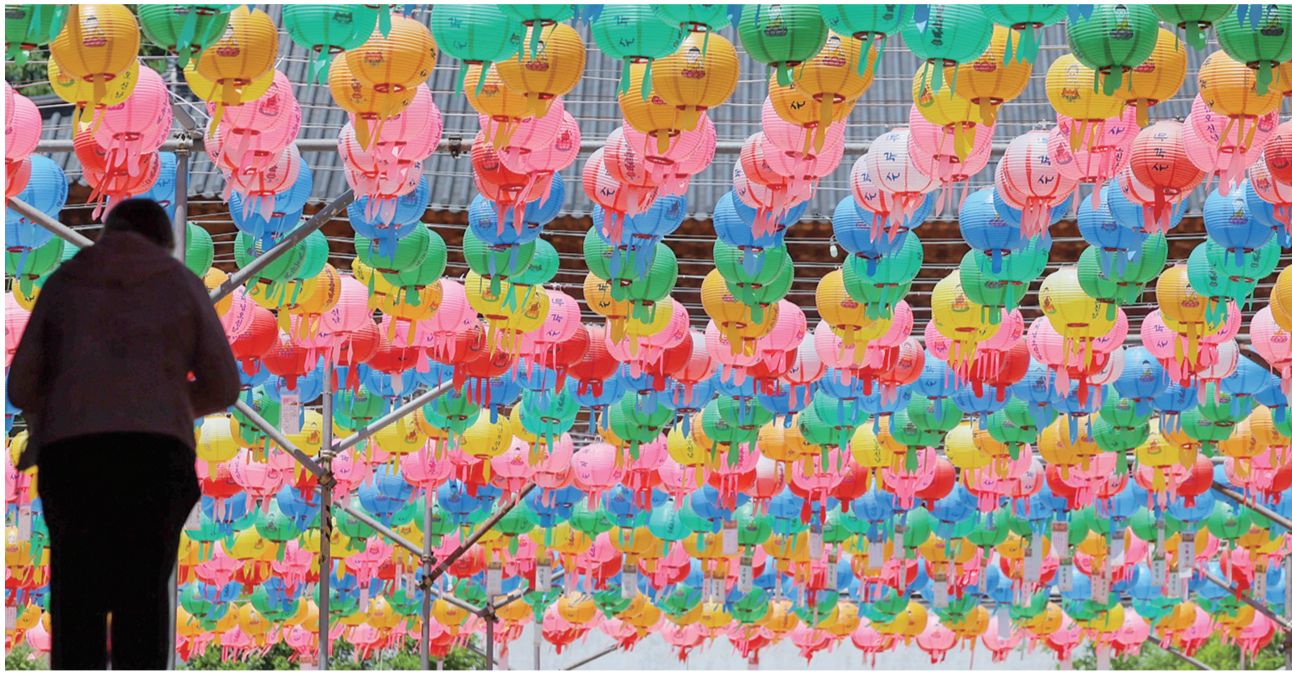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대체로 지자체는 개발 등의 이유로 환경 보호구역 지정을 꺼려한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은 북구가 나서 도심 내 환경구역 추진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등 기후위기가 눈앞까지 와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생활하고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이번 습지를 잘 가꾸고 보존해 추후 다른 곳에서도 도심 내 녹지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평두메습지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생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광주는 황룡강 장륙국가습지와 함께 세계적인 습지를 보유한 생태도시가 됐다. 습지는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나 기후변화완화·적응 기능을 한다”며 “시민들이 습지를 즐길 수 있도록 동·식물 안내판을 비롯해 관련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관리·보전에도 힘쓰겠다. 무등산 충민사부터 20분간 이어지는 평두메 습지길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내년 본예산에 람사르습지 시민 프로그램과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금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오색 연등 걸린 무각사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이틀 앞둔 13일 광주 서구 무각사에 오색 연등이 내걸린 가운데 불자들이 합장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부정행위’ 광주 시내버스 업체, 준공영제 ‘제외’

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 의결  
사업자 책임성 강화·투명성 제고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부처님 오신날 15일자 신문 쉽니다

### 자연도 정성도 맛도 영양도 아낌없이 다 담은 전남쌀

넉넉한 평야에서 받은 햇볕 한가득  
대숲과 바다 훑고 지나온 청량한 바람과  
일년 사계절 씹없이 들본 농부의 지극 정성까지  
전남쌀은 맛 좋은 밥을 위해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담았습니다

영양 가득 맛 좋은 전남쌀은 **전남도장터**에서 [jnmall.kr](http://jnmall.kr) 에서